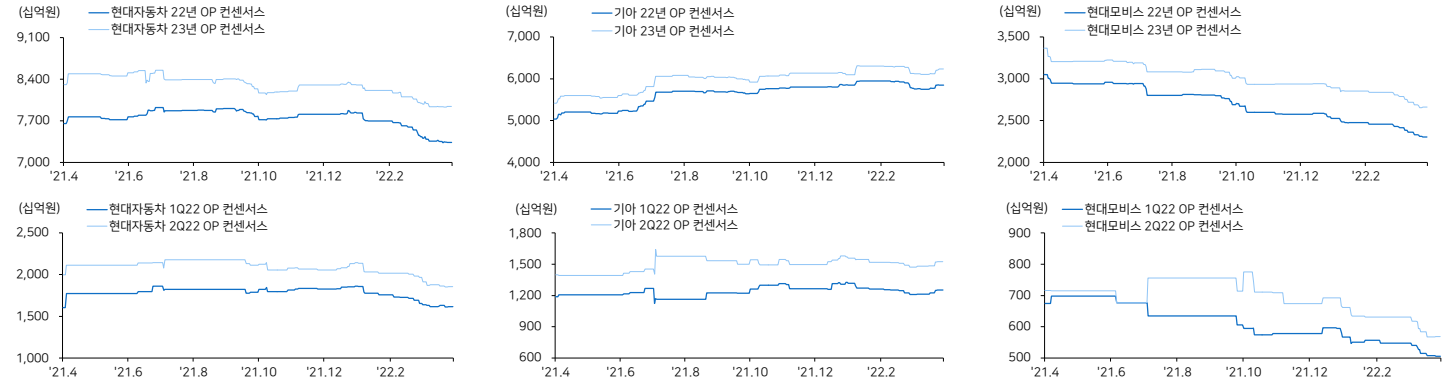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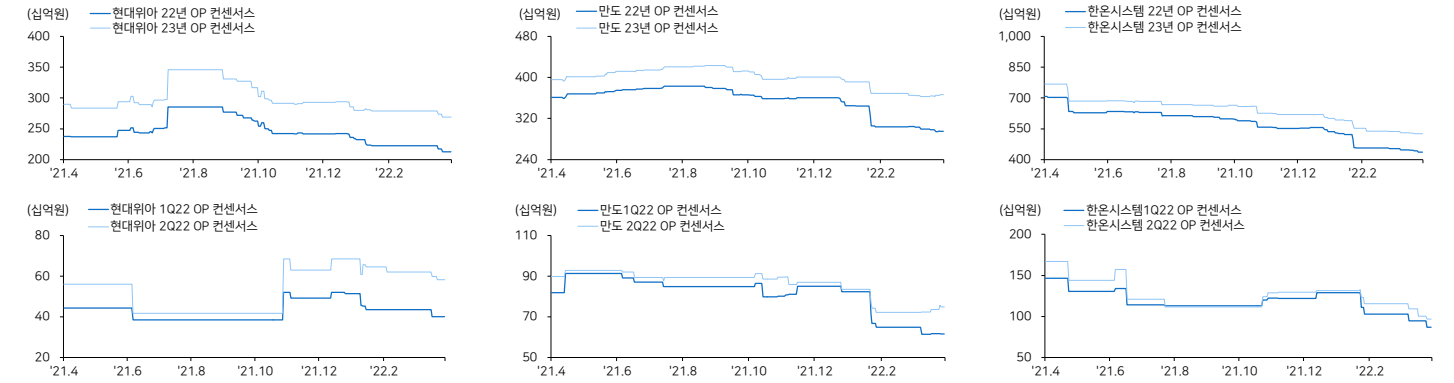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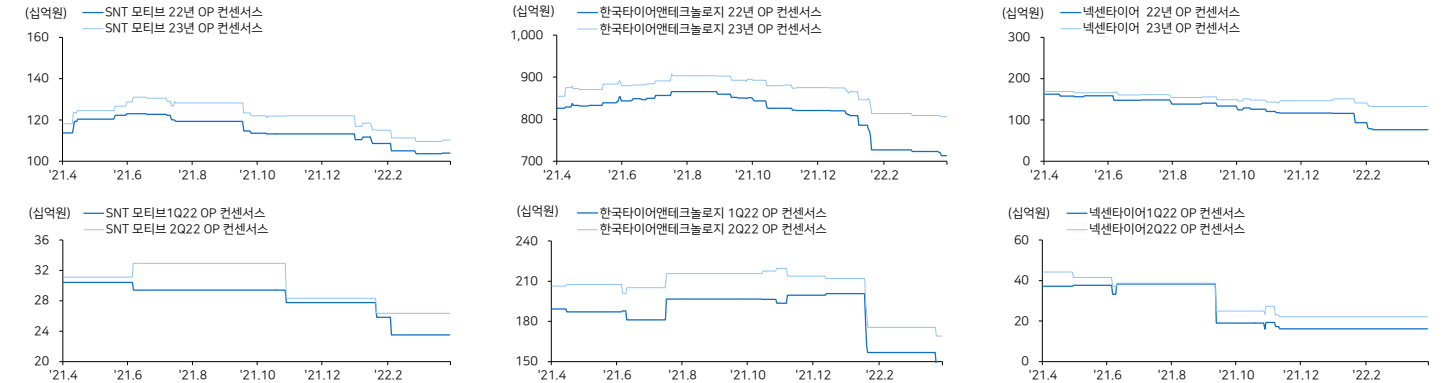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자동차업계 "올해도 차값 상승세 이어갈 것" (매일경제)

2022 뉴욕 오토쇼에서 자동차 업계 임원들은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문제 해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동차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기아 북미 COO는 대리점 재고 회복에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언급함.
<https://bit.ly/3EnPtHO>

LG엔솔, 印尼서 11조원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ZDNet Korea)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LG컨서시엄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회사 '안람',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회사 'IBC' 등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투자 관련 '논바인딩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원재료 안정적 확보가 주요 목적.
<https://bit.ly/3Eoxv7U>

Tesla FSD Beta now has over 100k drivers in the program (Teslarati)

Elon Musk는 TED 인터넷에서 Tesla의 FSD 베타 프로그램에 100,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 또한 자율주행용 차량을 해결하려면 Real World AI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으며, 이는 Tesla의 자율주행 개발 전략과 일치함.
<https://bit.ly/37o8fJw>

Volkswagen China says its plants in Changchun resume production (Reuters)

VW-FAW는 중국 북동부 창춘 공장이 COVID19 확산세의 완화로 인해 점진적 생산 재개에 들어섰다고 밝혔. 또한 SAIC는 상해 공장의 생산재개 가능성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월요일부터 자체 생산계획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
<https://reut.rs/3JSTR2K>

현대차,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 진출...글로벌 유행차 최초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에 진출함. 인기 NFT 캐릭터 '메타공조'와 협업해 한정판 현대X메타공조 NFT 30개를 4월 20일 발행할 예정이며, 가격은 개당 10이더리움으로 알려짐.
<https://bit.ly/3JUKCDJ>

현대차 · 기아 중고차, 인제부터 살 수 있나...사업계획 공식 발표 (머니투데이)

현대차 · 기아는 중소기업자와 상생을 위해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 중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인종 중고차 사업에 나설 계획. 기아는 '중고차 구독서비스'로 현대차와 중고차 시장 진출 전략을 차별화함.
<https://bit.ly/3Jvuzkp>

The latest numbers on the microchip shortage: North America, China take hit (Automotive News)

AutoForecast Solutions에 따르면, 최근 업계의 생산량 감소 중 대부분은 북미와 중국에서 나타남. 올해 현재까지 공표된 글로벌 완성차 생산차질은 약 150만대, 실질 생산차질 대수 예측치는 225만대 수준.
<https://bit.ly/30pg7oq>

Jidu sets robot car concept unveiling for June, teases dual LIDAR solution (CNEV Post)

베이징 모토쇼 연기로 인해 Jidu의 컨셉카 '로봇카' 공개 역시 6월로 미뤄짐. Jidu는 자율주행에 AT128 semi-solid-state LIDAR와 Nvidia Orin Chip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3년 인도 시장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함.
<https://bit.ly/3UUrVa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